

향기로운 예물

현금 기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장학 기입 085-056206-04-054(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지한(유소정) 김창길(백경자) 김한나(김형기) 김현숙(송형기) 남해순 박권제(송명숙) 박순자 배세영(이경순) 오귀숙 유은자 이근자 이명희(문영원) 이상희 이우진 이윤옥 이태일(송백현) 이형욱 전순봉 조규래 최기훈(정계숙) 최정규(김미영) 최현석 허봉선 황상근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지한(유소정) 김하은 김한나 김현숙(송형기) 박금옥(임형문) 박복순(김대준) 박부웅(최귀남) 송순량 유은자 윤병호(양영욱) 윤정호(유옥자) 이강우(김재인) 이경순(배세영) 이근자 이명희(문영원) 이상희 이옥남 최기훈(정계숙) 최선미(이진우) 최성현 추재호 허봉선 홍한표 바울남전도회 에스더여전도회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이필레 김경엽(손정아) 김명숙(공인석) 김미경(신홍선) 김병울(이영숙) 김중익(박애순) 김춘화 남해순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승현 박종삼(이명원) 방영배 백경자(김창길) 백성원(안지영) 석애자(진취부) 송순양 영영분(천세력) 오현일 이경자(주경덕) 이유진 이종문 전개자 채명엽 최성현 하세련 한광순 허정열(강영애) 홍정훈(김민지)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준 김성종B 김아이린 김영중 김이안 김종인 김주원 맹지혜 민옥희 박민서 박민재 박성재 박영식 배소현 서로이 서로하 심순옥 양영욱 양일석 오기쁨 이강우 이경선 이경자 이노을 이상이 이상희 이성식 이수정 이아론 이유진 이진우 임윤정 임지훈 정기성 주성탁 최대현 최봉순 최선미 무명

☞ 월정현금

15주 * 새벽기도회 *					
주 일	시편 95편 1절 ~ 11절				
월요일	시편 96편 1절 ~ 13절	목요일	시편 99편 1절 ~ 9절		
화요일	시편 97편 1절 ~ 12절	금요일	시편 100편 1절 ~ 5절		
수요일	시편 98편 1절 ~ 9절	토요일	시편 101편 1절 ~ 8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울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걸 장윤주			
은퇴장로	장명원 문영원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목사	윤희진		
	원로전도사	이필레		
찬양대	교육전도사	김선희 최유경		
	반주자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 : 이난수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지예빈 김민지 김미희 최선미 이상희 윤예진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이수경 이재아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수리미	국: 김경숙 남: 안석렬 이성욱 국: 김다니엘 국: 최옥희	이집트: 김진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옥 모잠비크: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맥시	국: 박영성 정세미 코: 김홍기	태국: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할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6. 04. 05

예수 다시 사셨네!

마태복음 28장 1~10절

설교: 이진우 목사

세계 역사상 가장 철저한 감시 속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로마의 봉인과 경비 속에서 완전히 ‘끝’ 난 것처럼 보였던 그 사건은, 오히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상징하던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1.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1~4절)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은 슬픔 속에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무덤은 봉인되었고, 인간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끝’ 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러냅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그 결과, 죽어 있어야 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 있던 경비병들은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선언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여십니다.

2.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5~7절)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중요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참됨을 증명합니다. 죄 사함, 영생, 하나님과의 동행-이 모든 약속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는 실패와 배신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부활은 단순한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3.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만남 (8~10절)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 속에 달려갑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닮아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실패한 자들을 여전히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절망에서 시작해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덤의 돌’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깨어진 관계, 깊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겼노라”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절망에 머물 것인가, 부활의 빛을 따라 나아갈 것인가.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끄는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SINCE 1975

No. 52 - 15

2026. 04. 12.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살이 예배되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